

福 나와라 뚝딱

신나는 전통놀이부터 웰메이드 공연 감동까지

◇'다복다복 설날맞이'...ACC서 즐기는 명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설 명절을 맞아 28-29일 이틀 간 어린이문화원 일대에서 '다복다복(多福多福) 설날맞이'를 개최한다.

이번 설날맞이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아시아 전통놀이, 창작체험, 어린이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아시아문화광장에서는 가족, 친구들과 호흡을 맞춰 걷는 '라리까유'부터 한 번에 승부를 겨루는 딱지치기까지 아시아 각국 놀이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아시아 전통놀이마당'이 펼쳐진다.

어린이체험관에서는 올해의 상징인 '푸른 뱀'과 어린이문화원 캐릭터 '시아와 친구들' 그림에 새해 소망을 담은 '푸른 뱀 딱지 만들기', '내가 만드는 웃놀이', '새해 소망 연 만들기' 등 전통놀이 체험이 펼쳐진다.

지난해 말 재개관한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스토리텔러가 들려주는 새해 그림책 이야기와 함께 창의력을 키우는 '새해에도 놀러와, 이야기 숲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다목적홀에서는 아시아 그림책 5권 속 이야기를 실감형 체험 콘텐츠로 구성된 전시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신나는 그림책 모험'이 진행된다.

어린이문화원 로비에서도 어린이 동반 관람객을 위한 체험과 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가족과 함께 웃을 단지며 새해 운세를 알아보는 '오랏차차 신년 웃점 한 판', 올해 받고 싶은 복을 카드에 적어 나무에 거는 '복(福)주머니 소원나무' 등을 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또 어린이와 부모의 일상에 온전한 휴식을 제공할 클래식 신년음악회 '마음정원 클래식', 즉석에서 그리는 캐리커처와 별문 코미디 등을 선보이는 '드로잉 서커스'도 펼쳐진다. 어린이극장에서는 동요 '반달'을 바탕으로 제작된 관객 참여형 동심놀이극 '반달정원'이 무대에 오른다.

이울러 설 연휴 어린이문화원 방문객에게는 선물 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선착순 제공한다.

◇박물관·과학관서 즐기는 '전통놀이 한마당'

국립광주박물관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는 28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립광주박물관 전시관·교육관에서 진행된다.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은 복주머니 미션 이벤트에 참여하고 인증하면 복주머니에 담긴 티포드를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특별전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관람 후 국립광주박물관 SNS를 팔로우하고 게시물을 업로드하면 연 꾸미기와 연날리기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관에서는 나전칠기 키링 만들기 체험(28일), 다식 만들기 체험(30일)이 각각 운영된다.

국립나주박물관에서도 설 연휴 기간 민속놀이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박물관 앞마당에서(설날 당일 29일, 대체휴관일 31일 휴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연휴 기간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방문객 누구나 투호 놀이, 제기차기, 굴렁쇠 놀이, 고리 던지기, 팽이치기 등 다채로운 전통 민속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국립광주과학관에서는 설날 당일 제외 28일과 30일 이틀간 상설전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 체험, 이벤트 등 3개 분야 8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8일 비눗방울 공연 '동심동심 버블쇼', 30일 샌드아트와 마술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공연 상상나라 '모래마술쇼'가 관람객을 기다린다. 공연을 유료(1천원)로 행사 당일 현장 발권. 전통놀이를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사포

와 제기차기 한판 대결 ▲사람의 투호놀이 ▲대형 웃놀이 한판 대결 ▲천하장사와 딱지치기&코믹 씨름 대결 체험을 각 1일 4회차 운영한다.

◇음악·어린이극·연극...집에서 즐기는 인기 공연

완성도와 작품성을 인정 받은 창·제작 공연을 집에서 만나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28-30일 ACC 유튜브 채널에서 '설날은 ACC와 함께'를 운영한다.

이번 연휴 기간 만나볼 영상은 음악극부터 어린이극, 연극 등 다양한 장르 총 6종이다.

13월기 속 희로애락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들을 그린 '마디와 매듭'은 '2022 ACC 아시아 스토리' 창·제작 공연으로 어벤져스급 제작진으로 화제를 모았다. 자연의 시간을 살아내는 여인들의 삶을 춤과 노래로 그려내며 한 편의 아름다운 공연을 선사한다.

인도 창작동화를 원작으로 하는 '달을 물들여'는 마을 화장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강요당하는 침묵을 깨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직접 만들고자 하는 '라티카'의 이야기다. 어린이극 특성에 맞게 통통 튀는 대사과 배우들의 움직임, 인도 느낌이 물씬 나는 춤과 노래가 관심을 이끈다.

동양의 안데르센으로 불리는 허마다 히로스케의 원작을 재창작한 작품 '빨간 오니'는 빨강·파랑 도깨비가 주인공이다.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은 빨간 오니의 영혼고도도 기발한 노력들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사랑, 나아가 다양성에 대해 이해해 볼 수 있다.

한국과 아시아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은 '2023년 춘천인형극제'에서 작품상(BEST3)을 수상한 바 있다. 다양한 집의 형태를 팝업북과 종이예술로 담아낸 어린이 공연으로 마음의 집을 더 튼튼하게 세우고 지키는 방법을 재미난 이야기로 전한다.

2024 ACC SF 시리즈 '대리된 존엄'은 인공지능으로 자녀를 갖는 것이 당연한 미래사회, 돈 많은 낭만주의자들의 필요에 의한 대리모 산업 한 가운데 성실한 소녀 앨리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실험적 서사를 통해 불평등 속에서도 대리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이란 가능한 것인지 질문을 던진다.

드라마 연극 '사사로운 사서'는 '2024 ACC 아시아 콘텐츠 시범공연'으로 무대에 올랐던 작품이다. 도서관 장서들이 침수 사태를 겪으면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의 회복과 익숙한 공간에서 낯선 상황을 맞은 인물이 오랜 부채를 마주하고 회복해 가는 과정을 그린다. 이와 함께 해당 작품은 낭독공연으로 편성돼 오디오북처럼 편하게 들을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약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